

청년기 부모교육사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Curriculum Development for Parent Educator of Adolescence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최 외 선

영남대학교 가족학전공

박사과정 여 순 옥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Choi, Wae Sun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Doctoral Course Yeo, Soon 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factors of parent's role expectancy and tp explore the educational curriculum of the qualified parent educator for adolesc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470 students of universities located in kyungsan. The data is analyzed by SPSSWIN computer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factors of parent's role expectancy of university students are consist in 5 factors. The Second, there is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environmental variation factors.

주요어(Key Words) : 부모교육(parental education), 교과과정(curriculum), 부모역할기대
(parent's role expectancy)

* 교신저자 : 여순옥(E-mail: shk3057@hanmail.net)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Hall은 청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a period of storm and stress)'로 묘사하며 청년은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의 갈등, 소외, 외로움, 혼돈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정옥분, 2003). 이 시기 부모와의 관계는 청년기의 정체감 형성과 개별화(individuation)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년기 자녀와 중년기 부모는 서로 다른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가는 발달주기단계로서, 부모-자녀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청년기 자녀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을 추구하고, 부모와 수평적 관계에서 의사소통하기를 원한다. 중년기 부모는 자신의 중년의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받아 지금까지의 자녀양육태도와 부모역할 패턴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부모-자녀 사이에 융통성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서로의 역할기대에 대한 불일치가 있을 경우, 갈등이 증폭되고 청년기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부모-자녀 간에는 가치관의 차이, 문화적 경험의 차이, 새로운 지식 수용의 차이 등으로 인한 현실적·물리적·심리적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갈등과 긴장이 잘 해소되지 않으면 청년기 자녀들은 심리적 부적응, 우울, 불안, 자살충동, 정체감 혼란 등 정신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또 학습부진, 대인관계 문제, 성문제, 부정적 자아개념, 약물남용, 섭식장애, 흡연, 음주, 폭력, 유해 미디어 접촉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 같은 청년기 문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다양화 되고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경향이 있다(김수현, 2003).

한편, 청년후기에 속하는 대학생 시기는 신체적, 성적 측면에서 본다면 성인과 다를 바가 없지만,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는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때이다. 이 시기 대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또 부모와 교사의 보호와 통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꾸려 나가고자 한다. 대학생들은 필연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독립의 기쁨도 향유하지만,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 자아의식과 인지능력의 발달로 기성세대와 기존체

제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고 반항하기도 한다(설기문, 1993).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김선애, 1990; 손해곤, 1992; 이경숙, 1983; 이정란, 1987; 차영희, 1987)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김석출, 조현호, 1999; 박재욱, 1994; 신윤아, 1998; 이달석, 1999; 황상하, 1994), 그리고 진로에 관한 연구(김봉환, 1997; 박영우, 1994; 박찬주, 1992; 서진숙, 1998; 이재창, 1995; 이정희, 1998)등이 많았다. 그러나 대학생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 및 관계만족도에 관한 연구(이수진, 2000)와 어머니의 대화방식과 대학생 자녀의 신경증 경향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박외숙, 2001),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용서, 그리고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오영희, 2004) 정도가 있을 뿐, 아직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와 그에 따른 갈등에 관해 연구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발달시켜나가는 단계이므로 부모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여 연구가 미미한 것으로 짐작된다.

대학생 자녀들은 다양한 역할에 대한 실험을 하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가치관문제, 진로문제, 학업성적문제, 경제문제, 이성문제, 성문제, 군대문제 등으로 정신적·심리적 갈등을 겪으며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방대한 정보처리 능력요구, 청년실업의 증가 등은 청년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정서적·경제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한편,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높은 기대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제 모습에 대해 실망하게 된다. 특히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문제를 자녀에게 투사(projection)하여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수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부모세대는 자신이 성장해온 환경과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기 자녀들을 자신의 성장경험에 의존하여 양육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기대수준은 어떠한지를 조사·분석해 보는 것은 청년기 부모교육사 교과과정 개발에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리라 본다. 본 연구는 우선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를 조사·분석하여 청년기 부모교육사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의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를 알아보고, 청년기 부모교육사 교육과정 개발

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대학생들의 부모역할기대 요인구조는 어떠한가?
- 2) 대학생의 부모역할 기대수준은 어떠한가?
- 3) 환경 변인에 따라서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는 차이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경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개 대학(Y대, K대, D대, H대)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부모역할 기대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년기 발달과제와 문제

1) 청년기의 개념

청년기는 이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했던 아동이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이며 과도기이다. 청년기(adolescence)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의 *adolescere*로, “성장하다(to grow up)”, 또는 “성숙에 이른다(to grow into maturity)”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허혜경, 김혜수, 2002).

청년기는 연령, 신체적 성숙도, 심리적 성숙도 등을 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연령적 기준은 12~13세에서 24~25세(정옥분, 2003), 18세경부터 20대 연령의 시기(최윤진, 2000), 10세~20세(Petersen, A.C. & N. Leffert, 1997) 등으로 다양하며, 또 Petersen과 Leffert는 청년기를 초기(10-13세), 중기(14-16세), 후기(17-20세)로 구분하기도 한다. 신체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때를, 그리고 심리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아정체감이 확립

되는 시기를 청년기로 규정할 수 있다(정옥분, 2003). 본 연구에서 청년기라 함은 청년후기에 속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시기로 대체로 19-26세 사이를 말한다.

2) 청년기의 발달과제

인간발달에는 각 발달단계별로 반드시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다. 발달과업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으로, 만약 특정 단계의 발달과업 성취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단계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의 발달에도 지장을 받는다. 따라서 발달과업은 한 개인이 그 단계에서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지식, 기술, 기능, 태도로 정의되며, 이는 신체적 성숙이나 사회적 기대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1) 자아정체감(ego identity) 형성

① 자아정체감의 의미와 발달

자아정체감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반드시 획득해야만 할 발달과업 (developmental task)임과 동시에 청년기가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이다. Erikson(1968)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은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주관적 측면이란 개별적 정체감(personal identity)으로서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질성(sameness)과 연속성(contingency)을 스스로 확인하고 동시에 자기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타인이 인식한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자기와 타인 양쪽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고 믿는 심리적 안정감을 뜻한다. 그에 대해 객관적 측면은 심리·사회적 정체감(psychosocial identity)으로서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집단과 사회에 대한 귀속감 내지 일체감을 의미한다. 즉, 자아정체감은 ‘~로서의 나’ 사이의 통합감으로서 자기의 연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고 또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conscious sense of individual identity)’인 것이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아의 기능이 어린 시절의 동일시를 선별하고 다양한 자기상을 점차적으로 통합해 나간다. 즉,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유아기의 애착 출현에서 시작되고, 노년기에 인생의 회고와 더불어 통합감을 이룰 때 그 마지막 국면에 접어든다.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청년이 수행해야할 과업은 과거 동일시의 산물을 미래의 열망과 적절히 연결시켜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얻는 방향으로 통합하는 것이다(정옥분, 2003). 이러한 청년기 자아통합과정의 곤란에서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 이유는 내적 충동의 질적·양적 변화, 진학과 취업에 대한 선택강요, 아이도 성인도 아닌 주변인으로서의 존재적 특징, 그리고 동일시 대상의 변화 때문이다.

② 자아정체감 수준과 성차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은 지속적인 자아정체감 위기의 극복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므로 자아정체감을 성취된 수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 위기에 대처하는 청년기의 양상은 크게 자아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ment)와 자아정체감 혼미(identity diffusion)로 분류된다. 자아정체감 성취란 행동이 안정되고 통합되어 있으며, 자기의식이 일관성이 있어 삶의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에 자아정체감 혼미란 직업선택과 심리·사회적인 자아수립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혼란스런 상태를 말한다(권향자, 1987).

Marcia는 정체감 형성 이론에서 위기(crisis)와 수행(commitment)을 준거로 하여 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ment), 정체감 유예(identity moratorium), 정체감 유실(identity foreclosure), 정체감 혼미(identity diffusion)등 네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정옥분, 2003, 재인용).

한편 Erikson에 따르면 정체감 탐색과정에서 남성의 주 관심사는 직업과 관념의 문제인데 비해, 여성의 주 관심은 결혼과 양육에 관한 것이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의 연구결과 남성의 정체감 형성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문화적 기대를 반영하는데 비해, 여성의 정체감은 사람간의 관계성과 친밀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임영식, 한상철, 2000, 재인용).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형성과 그 관련변인을 알아본 김선애(199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청년의 안정된 자아정체감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규(1993)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공감적 이해, 존중, 직면이 촉진적일 경우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손해곤(1992)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 및 정체감 위기의 연구에서 성취단계의 사람은 다른 모든 단계에 비해 과거에 위기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예기에 있는 사람은 현재 네 가지 정체감 단계 중에서 가장 많은 위기경험을 하는 것으로, 유실과 혼미단계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가장 적은 위기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경숙(1983)은 대학생의 자아정체 수준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균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차영희(1987)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 수준과 학업성취도가 계열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정체감 수준은 직업, 인생관, 이념, 성문제 영역에서 대부분 유예나 혼미수준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성교제

청년기 대학생들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진다. 고등학교 선·후배, 대학 선·후배, 동아리 친구, 이성 관계, 각종 동호회 등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그 중에서도 데이트와 이성 관계는 대학생들 사이에 있어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랑하

는 사람과의 관계탐색에 쏠린다. 이러한 탐색을 통하여 그들은 사랑과 관련된 복잡한 감정과 그들 삶에서 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사랑에 있어 큰 부분이 되는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한다(차승희, 1993). 즉, 청년기 대학생 시기에는 동성친구와의 우정에서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와 낭만적인 애정으로 인간관계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도움을 주며, 동시에 형성된 자아정체감은 이성과의 성숙한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성숙자, 백지숙, 2003). 또한 이성교제를 함으로써 사랑의 본질과 기쁨을 알며, 예의를 잃지 않고 이성에 대한 욕구와 흥미관심을 방출하고, 서로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할 줄 알며,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통적인 일에서 협동할 수 있는 자질을 터득하며, 나아가서는 배우자 선택이나 장차 결혼생활을 원만히 해나갈 수 있는 기초적 자질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의의는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다시 보게 하는 자아의식, 자아평가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유영주, 1992). 또한 남녀의 이성교제는 결혼생활을 위한 기초적이고 전체적인 이성과의 생활훈련인 것으로 사회화의 기능, 이성에 대한 적응의 기능, 인격도야의 기능, 오락적 기능과 함께 궁극적으로 배우자 선택에 기여한다.

반면에 이성교제가 진행되는 과정은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사회적 성역할에 따라서 데이트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남녀가 느끼는 어려움이 각각 다르다. 보편적으로 성(性), 의사소통, 데이트 비용, 학업 및 일에 지장 초래, 심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는 대학생 자녀의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위해 올바른 방향을 권장하고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부모는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확립하고 바람직한 이성관에 대해서 자녀에게 전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데이트에 대한 올바른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성(性)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를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화를 통하여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이기숙 외, 2004).

정미경(2004)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이성교제는 미팅과 학교 내에서의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으며, 이성선택의 조건은 외모, 인간성 등이었으나 결혼을 생각할 때는 상대방의 재력이나 부모의 능력들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순결에 대한 생각은 모든 변인에서 절대 순결보다는 매우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비용은 서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제하는 이성에 대해 부모와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희(1988)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하는 이유는 '좋은 대화의 상대자를 얻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주로 고교시절과 대학 1학년 때 첫 데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상대는 우연한 기회나 친구와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전체의 89.4%가 데이트 경험이 있었고 이성교제 시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였다. 차정화, 전영주(2002)는 이성교제 중인

커플남녀의 원 가족 건강성 수준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Bowen의 원 가족으로부터 분화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하였다. 또 남성이 여성보다 이성파트너에 대한 친밀감을 더욱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3) 진로 탐색과 선택

청년기는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인간의 성장과정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 바로 이 시기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위해 방향을 설정하고, 선호하는 직업세계를 관찰하기도 하며, 구체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진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성숙자, 백지숙, 2003). 특히 청년기에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한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청년기에 속한 개인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활양식은 물론 가치관과 태도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만족스러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박찬주, 1992, 재인용).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로서 진로를 탐색하고 시험해 볼 기회가 부족하므로 대학에 들어와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게 된다.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진로문제(김지환, 임정섭, 1987; 이민영, 홍창희, 2000; 이재창, 199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진로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진로(Career)란 한 인간이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서, 목표를 달성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교육, 대인관계, 훈련, 직업, 결혼, 가정생활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삶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직업이며,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구현하고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또한 진로선택은 한 개인이 장래의 자기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자신의 정해진 삶의 목표를 성취하여 행복하게 인생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직업을 찾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진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자신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위의 환경과 직업세계를 충분히 분석, 종합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즉, 진로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관, 흥미, 적성, 능력과 같은 내적인 특성과 언어, 습관, 용모 등과 같은 외적인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둘째, 직업 세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즉 직업의 종류와 그 특성,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 보수, 장래성 등에 관한 자료가 풍부할수록 직업탐색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즉, 자기 자신과 직업에 관계되는 중요한 요인들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생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의사결정은

이를 토대로 하여 행해지는 종합적인 인생행로의 결정 과정이다. 또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자는 자기 자신이며 부모나 주위사람은 단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문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검토·수정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향후 진로방향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된다.

한편,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화 및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전문화, 다양화, 세분화에 따라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기존의 직업들이 없어지기도 한다. 또 현재는 시대적으로 구직난, 취업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대학생들은 진로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는 대학생 자녀가 진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김재원(2003)에 따르면 대학교 4학년 남녀 학생이 취업을 위한 면접 준비와 학점에서는 준비정도가 비슷하고, 구직활동, 영어, 이력서 작성측면에서는 남학생이, 코디네이션과 메이크업에서는 여학생이 준비가 더 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이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며 취업에 대한 각종 준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1998)에 의하면 자아개념이 높고 내적 통제성을 가지며 불안이 낮을수록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주(1992)에 따르면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저학년 보다 고학년이, 학교성적이 우수할수록, 아버지가 고학력일수록 진로의사결정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녀 대학생의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환(1997)도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고학년이 될수록 높아진다고 제시하였다.

3) 청년기의 문제

대학생 시기는 청년기 후기에 속하며, 규율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율적인 생활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시기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내적·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즉, 대학생들은 완전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아 방황, 혼란을 거듭하며 다양한 활동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까지 각 대학별로 또는 전국단위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김재은, 안덕자, 1981; 김지환, 임정섭, 1987; 박태수, 김두화, 김병택, 1996; 이혜성, 손영숙, 김미경, 1989). 김재은, 안덕자(1981)는 여자대학생의 문제를 신체 및 건강, 성격, 가족관계, 경제, 인간관계, 학문연구, 이성 및 성, 여가선용, 장래 및 결혼, 종교 및 사회적 가치로 나

누어 조사하였다. 이해성, 손영숙, 김미경(1989)은 전국 17개 대학의 보고서 38편을 집중분석하고 각 대학에서 사용한 검사문항들과 영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생들의 당면문제를 건강, 경제, 부모 및 가정, 대인관계, 성격, 학업생활, 교양 및 여가선용, 진로 및 취업, 종교 및 가치관 등 9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설기문(1993)은 '우리나라 대학상담의 이론적 모형'이라는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문제를 정신건강문제, 인간관계문제, 진로문제, 학업문제, 학업외의 학교생활문제, 이성 및 성문제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의 대학생 문제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강문제, 진로문제, 학업문제, 가족관계문제, 이성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 외에 음주문제, 흡연문제, 성폭력문제, 인터넷문제, 생활습관문제, 군입대문제 등 개인이 처해진 환경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김지환, 임정섭(1987)에 의하면, 충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문제를 조사한 결과 '진로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과외활동', '교수와 학생 자신들에 관련된 불만', '학과적응문제', '가치관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박태수, 김두화, 김병택(1996)은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성향과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정도를 조사하였다. 문제성향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학업생활'이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 '교양 및 여가' '진로 및 취업'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대인관계'였다. 이러한 문제점수와 관련하여 노력정도를 보면, 가장 높은 노력점수를 보인 영역은 '성격'이고, 그 다음은 '학업생활', '건강', '대인관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력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경제'였다. 이민영·홍창희(2000)는 2000년 상반기에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를 내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상담받기 원하는 문제를 조사하였다. 내담자가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은 진로문제, 적성문제, 성격문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가족보다는 친구와 의논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 홍익대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장래 취업 및 진로문제(37.7%), 학업 및 성적(23.5%), 이성문제(7.8%)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민문제나 진로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는 대상을 보면 친구나 선배가 50.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13.6%)이고, 다음으로 부모(11.0%)나 형제(4.8%)와 상의하는 경우이고, 지도교수와 상의하는 경우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창, 1995).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효과적인 자기표현 및 인간관계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자질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행동과 실천을 통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해결방법을 찾기보다는 소극적인 해결방법에 머물고 있다(박태수, 김두화, 김병택, 1996).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개인의 문제해결에 교수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문제해결을 도와줄 전문가의 조언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대학생 자녀들이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효과적인 부모역할이 필요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 청년기 부모 역할 및 청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발달과업

1) 청년기 부모역할

청년기 자녀들은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가치의식의 변화로 부모의 권위, 전통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모역할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청년기에는 발달적 특징으로 행동상의 혼란과 초조감이 생기므로 부모는 상담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유능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자녀의 학교 생활·사회생활에 관한 예비지식을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이해와 수용, 애정을 내포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적 이해를 해나가야 한다. 또 청년기 자녀의 독립을 위하여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를 줄이고,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자녀가 자신감을 갖고,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동시에 부모는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

한편, 21세기의 디지털 사회는 사이버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와 사이버문화의 이해가 부족한 부모 간에 의식과 개념의 차이가 크고, 서로간의 의견충돌의 소지가 많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4)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이 N세대 자녀는 94.8%, 부모는 51.7%로 나타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인터넷 이용률 차이가 43.1%로 매우 크다. 그러므로 부모는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고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기 자녀의 발달과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부모는 민주적 양육태도, 성(性)에 관한 지식, 그리고 진로선택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수현(2003)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데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 이지연(2004)은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스트레스 감소와 자살 생각을 줄여준다고 제시하였다. 한소선(2002)은 청소년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높은

돌봄과 낮은 과보호로 대하는 적절한 결합집단이 자녀의 정서적, 성격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자녀의 우울수준이 가장 낮았다. 김영환(1978)은 청년기 가출과 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기대와 지각 간에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역할 중 비합리적인 훈육방법, 행동의 비밀관성 및 신체적 정서적 처벌이 가출을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기 부모 역할에서 자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청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및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년기 자녀의 부모역할 기대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자녀라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관계로서,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발전하는 관계이다(김재은, 1987).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에게서 일방적인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지지만 자녀가 성장해감에 따라 부모-자녀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상대방의 역할에 따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은 달라진다. 이때 서로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요구의 강도와 상호 기대하는 상대방 역할의 정도에 따라 부모-자녀관계는 심리적 거리감과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기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기 자녀의 부모역할 기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대부분이다. 나종완(1990)은 중학생들의 부모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아버지의 적극적인 활동과 취미생활을 요구한 반면 여학생은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심은 물론 거리감 없이 친구처럼 지내기를 바라며, 지나친 기대와 간섭이 배제된 한 인간으로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기(1985)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조사한 결과 '친근한 아버지',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아버지', '자녀에게 자유롭게 해주는 아버지'를 원하였고, 바람직한 어머니상은 '친근한 어머니',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어머니'를 원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영순(1986)도 남학생은 어머니에게 여학생은 아버지에게 단란하고 안락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 주길 바라고, 집안일에 부모가 협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보고하였다. 또 1999년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바람직한 아버지상은 청소년 후기의 경우 정직과 정의로운 아버지(25%), 성실한 아버지(10%),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5%), 자기관리를 하는 아버지(5%)였다. 즉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45%가 부친이 삶의 본보기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에 비해 어머니는 자상하고(20%), 건강하며(15%), 자신의 삶을 살기를(15%) 원했다(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2000).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

관식(1988)의 연구에서 아들과 딸은 모두 부모에게 화목하고 안락한 가정 분위기 조성, 상담 및 대화, 가정교육을 원했다. 한남제(1981)의 연구에 의하면 중요한 일은 아버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아들이 65.5%, 딸은 70.1%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의 경우는 아들은 57.9%, 딸은 51.7%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중요한 일이지 아니든 아버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아들은 7.2%, 딸은 10.3%였으며, 어머니와는 아들은 19.4%, 딸은 43.0%로 나타나 어머니에 대한 상담기대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아버지 역할로서 남녀 학생들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도록 가정교육을 잘 하는 것,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정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어머니 역할로는 안락한 분위기 조성, 가정교육, 상담대상을 원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녀들은 대체로 부모에게 단란하고 안락한 가정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부담 없는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청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발달과업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략 40~50세 전후의 중년기에 해당한다. 중년기는 가정과 직업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산적인 시기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은퇴를 경험하거나 이에 대비해야 하는 우울한 시기이기도 하다. 중년기는 이러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과 심리적 분리를 경험해야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노부모를 경제적·육체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힘든 샌드위치세대(sandwich generation)이다. 즉, 중년기 자녀는 노부모에 대한 효도의 의무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중년기 특성을 많은 학자들은 중년기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다(정옥분, 정순화, 2004).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대학진학, 군 입대, 취업 등으로 부모를 떠나게 되므로 부모는 상실감과 심리적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또 갱년기의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새로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Duvall은 이 시기를 텅 빈 보금자리(empty nest period)라 부르고 새로운 자각에 눈을 뜨는 시기로 보았다(박아청, 2000 재인용). 이처럼 중년기에 자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내면의 소리나 자아에 충실하게 되는 것은 발달주기 상 과업이며, 이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Rubin은 중년기 부인의 위기감은 자녀의 독립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역할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발생하며, 이것이 중년기 부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김명자, 1986 재인용).

한편 자녀가 독립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중년기 부부는 다시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부관계를 재평가하게 되고 변화를 시도한다. 이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새로운 사회활동이나 취미생활, 봉사활동으로 전환시켜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한다.

진미정(1993)은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에서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어머니역할에 따른 부담은 중간정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고졸집단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우울정도를 보이고, 가계소득 수준이 높고 전문직을 가진 경우에 자존감과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제시하였다. Silverberg와 Steinberg(1987)은 중년기 부모의 정체감은 동성자녀의 정서적 자율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산지역에 소재한 4년제 종합대학교(K대, D대, Y대, H대)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으로 550명의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520부가 회수 되었다. 이중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자료처리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설문지 50부를 제외하고 남학생 216명, 여학생 254명 총 470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70)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216(46.0)	부 연령	50세 이하	134(29.3)
	여	254(54.0)		51-55세	230(50.2)
연령	18-20세	62(13.2)		56세 이상	94(20.5)
	21-23세	208(44.4)	모 연령	50세 이하	296(63.4)
	24-26세	167(35.6)		51-55세	137(29.3)
	27세 이상	32(6.8)		56세 이상	34(7.3)
학년	1학년	84(18.3)	부 학력	중졸이하	78(17.0)
	2학년	69(15.0)		고졸	257(56.0)
	3학년	190(41.4)		전문대졸이상	124(27.0)
	4학년	116(25.3)	모 학력	중졸이하	121(26.0)
출생순위	말이	212(46.7)		고졸	283(60.9)
	중간	51(11.2)		전문대졸이상	61(13.1)
	막내	191(42.1)	월수입	100만원 미만	23(5.1)
거주형태	자택	304(65.5)		100-200만원미만	115(25.6)
	자택이외	160(34.5)		200-300만원미만	168(37.4)
가정생활 만족도	매우만족	120(26.5)		300-400만원미만	76(17.0)
	만족	286(63.1)		400만원 이상	67(14.9)
	불만	47(10.4)	부 직업	단순노무직, 농,임업	57(13.4)
학교생활 만족도	매우만족	82(18.1)		회사원, 기술자	150(35.4)
	만족	289(63.8)		공무원, 전문직	62(14.6)
	불만	82(18.1)		자영업	155(36.6)
용돈 만족도	매우만족	61(13.6)	모 직업 유무	유	190(43.2)
	만족	254(56.4)		무	250(56.8)
	불만	135(30.0)			

2. 연구절차

부모에 대한 대학생자녀의 부모역할기대 설문지는 참고자료(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1)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와 전문가 3명이 최초 80문항을 만들었다. 그 뒤 10여 차례 걸쳐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수정하여 50문항을 구성하였다. 2005년 3월 말에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타당성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전문가 3명과 예비조사 설문지를 분석한 후, 청년기 자녀의 부모역할기대 내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0이하인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적합한 문항을 부가하여 설문지의 문항을 5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하여 본 조사는 2005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설문지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는 16문항과 부모역할기대 척도 50문항으로 총 66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역할기대 척도는 참고자료와 예비조사를 거쳐 5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을 4점 Likert척도로 ‘아주 그렇다’는 4점, ‘대체로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아주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일치도에 대한 신뢰도검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한 결과 다섯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부하값이 .30이하인 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41문항을 추출하였다. 다섯 요인은 생활습관 12문항, 가족관계 11문항, 진로문제 8문항, 성문제 5문항, 이성교제 5문항이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949이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역할기대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요인	생활습관	가족관계	진로문제	성문제	이성문제	전체
Cronbach α	.925	.914	.757	.849	.744	.949
문항수	12	11	8	5	5	41

4. 자료분석

본 연구결과는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인 설문지 문항의 확정을 위하여 문항분석을 하였으며, 신뢰도 검증과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하였고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의 부모역할기대 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영역별로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환경 변인에 따른 부모역할기대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 요인구조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위영역별로 묶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회전방법은 직교회전(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는 다섯 요인을 지정하여 추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 1은 고유치가 7.68이며 변량은 18.74%이다. 요인 1은 12문항으로 휴대폰 사용시간 및 요금, 기상 및 취침시간, 식습관, 소비생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생활습관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고유치가 6.03이며 변량은 14.72%이다. 요인 2는 11문항으로 부모님의 부부관계 원만, 자신과 부모님과의 관계 친밀, 부모님이 자녀를 평등하게 대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족관계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고유치가 3.61이며 변량은 8.79%이다.

요인 3은 8문항으로 전공선택, 직업선택, 취업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진로문제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고유치가 3.33이며 변량은 8.13%이다. 요인 4는 5문항으로 성(性)에 관한 의논, 성적 가치관, 성에 관한 문제해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성(性)문제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고유치가 2.99이며 변량은 7.29%이다. 요인 5는 5문항으로 이성친구 선택,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이성문제 이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성문제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2.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 수준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 수준은 성문제(M=2.47), 진로문제(M=1.99), 이성문제(M=1.95), 생활습관(M=1.94), 가족관계(M=1.69)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 수준은 4점 만점에 1.93점으로 대체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 요인 행렬표

(N=470)

문항	생활습관	가족관계	진로문제	성문제	이성문제	Communality	α
23	.724	.209	.175	.052	.092	.609	.925
24	.719	.228	.162	.080	.084	.619	
21	.705	.260	.097	.108	.116	.599	
20	.660	.273	.150	.081	.164	.566	
50	.633	.332	.242	.154	.059	.596	
22	.628	.404	.238	.169	.088	.650	
31	.619	.354	.293	.173	.038	.626	
46	.605	.103	.016	.219	.389	.576	
28	.582	.184	-.045	.178	.522	.680	
19	.551	.385	.226	.158	.071	.533	
42	.540	.354	-.142	.106	.091	.457	
30	.536	.264	.004	.223	.523	.680	
41	.157	.772	.179	.145	.144	.695	
47	.280	.738	.050	.008	.146	.647	.914
43	.370	.701	.103	.031	.135	.658	
48	.348	.649	.211	.191	.056	.627	
40	.114	.648	-.002	-.003	.125	.449	
32	.479	.591	.243	.219	.042	.687	
33	.529	.587	.281	.144	.086	.732	
45	.529	.563	.157	.136	.104	.651	
39	.354	.557	.125	.331	.028	.562	
34	.392	.497	.066	.138	-.005	.424	
44	.382	.464	.075	.069	.036	.373	
11	.063	.152	.687	.018	.066	.503	
16	.317	.040	.664	.012	.077	.549	.757
10	.004	.083	.641	.180	.042	.452	
12	.191	.236	.569	-.047	.153	.442	
8	-.040	.443	.567	.056	.137	.542	
9	.048	.312	.518	.046	.169	.398	
17	.475	-.075	.517	.144	-.016	.520	
18	.072	-.107	.466	.181	-.104	.277	
35	.132	.130	.011	.875	.182	.833	
37	.226	.143	.131	.823	.163	.792	
6	-.031	-.025	.225	.691	.326	.636	
36	.350	.228	.096	.667	-.043	.630	
38	.351	.346	.236	.512	-.146	.582	.849
4	.013	.057	.163	.022	.749	.591	
25	.511	.147	-.089	.062	.600	.655	
29	.445	.258	.058	.178	.590	.647	
5	-.001	.021	.242	.142	.589	.425	
26	.453	.229	-.116	.051	.456	.482	
고유치	7.68	6.03	3.61	3.33	2.99	전체 신뢰도	.949
설명변량	18.74	14.72	8.79	8.13	7.29		
누적변량	18.74	33.46	42.25	50.38	57.67		

<표 4>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 수준

(N= 470)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생활습관	1.94	0.54
가족관계	1.69	0.52
진로문제	1.99	0.41
성문제	2.47	0.63
이성문제	1.95	0.66
전 체	1.93	0.43

3. 환경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의 차이

환경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년, 출생순위, 거주형태,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용돈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부모 변인으로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월평균 수입,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역할기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한 결과는 <표 5>와 <표 6>과 같다.

1) 개인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의 차이

개인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는 성별에 있어서는 생활습관($F=3.37, p<.01$), 가족관계($F=4.04, p<.001$), 진로문제($F=4.24, p<.001$), 성문제($F=5.2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생활습관, 가족관계, 진로문제, 성문제에 대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생활습관($F=7.67, p<.001$), 가족관계($F=3.69, p<.05$), 진로문제($F=5.71, p<.01$), 성문제($F=9.07, p<.001$), 이성문제($F=5.92,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24세 이상 집단이 23세 이하집단보다 생활습관, 가족관계, 진로문제, 성문제에 대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성문제에 있어서는 27세 이상 집단이 26세 이하 집단보다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있어서는 부모역할기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이성문제($F=3.37, p<.05$)에서 중간이 맏이나 막내보다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거주형태에 있어서는 이성문제($F=-2.07,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거주지가 자택이 아닌 집단이 자택인 집단보다 부모역할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가족관계($F=4.42, p<.05$), 진로문제($F=6.67, p<.01$), 성문제($F=3.35,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정생활에 불만인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보다 가족관계와 진로문제에 대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문제에 대한 부모역할기대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진로문제($F=6.46,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에 불만인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보다 진로문제에 대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용돈 만족도에 있어서는 생활습관($F=7.69, p<.01$), 이성문제($F=4.53,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용돈에 만족하는 집단이 불만인 집단보다 생활습관과 이성문제에 대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의 차이

부모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는 아버지의 연령에 있어서는 생활습관($F=6.46, p<.01$), 가족관계($F=3.92, p<.05$), 진로문제($F=5.91, p<.01$), 성문제($F=5.12, p<.01$), 이성문제($F=3.78,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연령이 56세 이상인 집단이 55세 이하인 집단보다 생활습관과 가족관계에 대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연령이 56세 이상인 집단이 50세 이하인 집단보다 진로문제, 성문제, 이성문제에 대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에 있어서는 생활습관($F=6.26, p<.01$), 성문제($F=4.42, p<.05$), 이성문제($F=7.43,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56세 이상인 집단이 55세 이하인 집단보다 생활습관과 이성문제에 대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문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 학력에 있어서는 부모역할기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 학력에 있어서는 생활습관($F=4.70, p<.05$), 성문제($F=3.12,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이 고졸인 집단보다 생활습관에 대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문제에 대한 부모역할기대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월수입, 부 직업, 모 직업 유무에 있어서는 부모역할기대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 개인 범인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의 차이검정 (N=470)

환경변인	빈도	역 할 기 대											
		생 활동 관			가족 관 제			진 로 문 제			성 문 제		
		M(SD)	t/F	M(SD)	M(SD)	t/F	M(SD)	M(SD)	t/F	M(SD)	M(SD)	t/F	t/F
성별	남	216	2.03(.66)	3.37**	1.79(.64)	4.04***	2.05(.46)	4.24***	2.59(.66)	1.94(.61)	2.03(.51)	4.40***	
	여	254	1.86(.38)		1.60(.37)		1.88(.39)		2.29(.57)	1.94(.64)	1.86(.32)		
연령	18-20세	62	1.76(.40) a		1.57(.40) a		1.83(.46) a		2.21(.56) a	1.74(.50) a	1.78(.32) a		
	21-23세	208	1.88(.36) a		1.64(.38)		1.91(.40) a		2.34(.51) a	1.93(.49) a	1.88(.31) a		
	24-26세	167	2.04(.71) b	7.67***	1.78(.69) b	3.69*	2.06(.44) b	5.71**	2.59(.68) b	1.95(.61) a	2.03(.55) b		
	27세 이상	32	2.18(.50) b		1.72(.36)		2.02(.39) b		2.64(.90) b	2.31(1.30) b	2.10(.42) b		
	1학년	84	1.84(.46)		1.60(.38)		1.84(.44)		2.38(.72)	1.96(.98)	1.86(.39)		
학년	2학년	69	1.91(.42)	1.42	1.69(.47)	.97	1.97(.48)		2.38(.60)	1.94(.51)	1.92(.38)		1.30
	3학년	190	1.96(.65)		1.71(.67)		1.98(.43)		2.46(.65)	1.90(.59)	1.95(.52)		
	4학년	116	1.99(.42)		1.70(.35)		2.01(.38)		2.44(.56)	1.99(.42)	1.97(.31)		
	만이	212	1.98(.64)		1.70(.65)		1.95(.46)		2.43(.66)	1.98(.59)	1.95(.50)		
출생 순위	중간	51	1.93(.44)	.83	1.64(.38)	.33	1.95(.39)	.49	2.44(.77)	2.09(1.07)	1.94(.38)		.22
	막내	191	1.91(.43)		1.69(.38)		1.99(.40)		2.43(.55)	1.86(.50)	1.93(.34)		
거주 형태	자택	304	1.91(.58)	-1.31	1.69(.58)	.47	1.97(.44)	.90	2.44(.64)	1.89(.55)	1.93(.45)		-40
	자택이외	160	1.98(.45)		1.67(.39)		1.93(.41)		2.40(.61)	2.02(.76)	1.94(.38)		
가정생활 빈속도	배우만족	120	1.90(.44)		1.57(.37) a		1.85(.44) a		2.31(.64)	1.93(.81)	1.86(.38)		
	만족	286	1.95(.59)	.46	1.71(.58) b	4.42*	1.98(.38) b	6.67**	2.46(.63)	1.95(.55)	1.95(.46)		3.00
	불만	47	1.97(.48)		1.80(.50) b		2.10(.60) b		2.56(.63)	1.86(.62)	2.00(.45)		
학교생활 빈속도	배우만족	82	1.87(.48)		1.58(.36)		1.86(.46) a		2.39(.70)	1.90(.93)	1.86(.40)		
	만족	289	1.95(.58)	.78	1.70(.59)	2.18	1.95(.41) a	6.46**	2.43(.66)	1.94(.55)	1.94(.46)		2.05
	불만	82	1.96(.45)		1.75(.40)		2.09(.44) b		2.47(.49)	1.98(.54)	1.99(.34)		
용돈 빈속도	배우만족	61	1.96(.53)		1.60(.45)		1.87(.49)		2.43(.75)	1.98(1.07)	1.91(.47)		
	만족	254	1.98(.40) a	7.69**	1.71(.37)	2.86	1.97(.41)	1.41	2.43(.55)	1.99(.47) a	1.96(.32)		3.42*
	불만	135	1.80(.42) b		1.63(.41)		1.97(.46)		2.41(.56)	1.80(.54) b	1.86(.36)		

* a, b : 서로 다른 문자 간에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 p<.05, ** p<.01, *** p<.001

<표 6 > 부모 범인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의 차이점 (N=470)

환경변인		빈도	역 할 기 대											
			생활습관		가족관계		진로문제		성문제		이성문제		전제	
			M(SD)	F	M(SD)	F	M(SD)	F	M(SD)	F	M(SD)	F	M(SD)	F
부 연령	50세 이하	134	1.85(.39) a		1.64(.41) a		1.87(.44) a		2.31(.52) a		1.88(.50) a		1.86(.33) a	
	51-55세	230	1.93(.42) a	6.46**	1.65(.40) a	3.92*	1.98(.42)	5.91**	2.44(.58)	5.12**	1.91(.51)	3.78*	1.92(.35)	7.54**
	56세 이상	94	2.11(.85) b		1.82(.84) b		2.06(.39) b		2.58(.85) b		2.10(.96) b		2.08(.64) b	
모 연령	50세 이하	296	1.88(.39) a		1.65(.40)		1.93(.42)		2.37(.56)		1.89(.50) a		1.89(.33) a	
	51-55세	137	2.01(.75) a	6.26**	1.73(.73)	1.62	1.99(.42)	1.43	2.52(.70)	4.42*	1.94(.62) a	7.43**	1.99(.56)	5.43**
	56세 이상	34	2.11(.56) b		1.78(.40)		2.03(.46)		2.62(.84)		2.32(1.27) b		2.09(.48) b	
부 학력	중졸 이하	78	1.94(.39)		1.67(.36)		1.96(.48)		2.44(.61)		1.96(.49)		1.93(.33)	
	고졸	257	1.97(.63)	1.31	1.69(.62)	.06	1.97(.44)	.30	2.44(.68)	.18	1.98(.71)	2.55	1.95(.50)	.76
	전문대졸 이상	124	1.88(.37)		1.69(.37)		1.93(.37)		2.40(.55)		1.83(.48)		1.90(.30)	
모 학력	중졸 이하	121	2.07(.77) a		1.76(.77)		2.00(.45)		2.53(.76)		1.99(.60)		2.02(.58)	
	고졸	283	1.90(.41) b	4.70*	1.66(.40)	1.57	1.95(.41)	1.27	2.42(.58)	3.12*	1.93(.66)	.90	1.91(.35)	3.31*
	전문대졸 이상	61	1.89(.42)		1.68(.39)		1.90(.43)		2.29(.54)		1.86(.51)		1.88(.35)	
원 평 균	100만 원미만	23	1.97(.67)		1.63(.46)		1.96(.42)		2.73(1.01)		2.13(1.59)		1.99(.57)	
	100-200만 원미만	115	1.99(.41)		1.70(.41)		1.98(.42)		2.41(.55)		1.95(.52)		1.96(.36)	
	200-300만 원미만	168	1.95(.67)	.62	1.71(.67)	.29	1.95(.38)	.20	2.42(.64)	1.38	1.94(.58)	.69	1.94(.50)	.32
	300-400만 원미만	76	1.87(.38)		1.65(.36)		1.94(.42)		2.44(.52)		1.90(.48)		1.90(.30)	
	400만 원 이상	67	1.92(.51)		1.69(.46)		1.98(.54)		2.40(.68)		1.89(.57)		1.92(.43)	
부 직업	단순노무직	57	2.07(.48)		1.69(.39)		1.98(.39)		2.43(.75)		2.10(1.04)		2.00(.43)	
	회사, 기술직	150	1.93(.38)	1.48	1.73(.43)	.49	2.00(.44)	1.30	2.47(.54)	.53	1.92(.49)	1.39	1.96(.34)	.94
	공무원, 전문직	62	1.95(.39)		1.69(.41)		2.00(.41)		2.45(.56)		1.91(.55)		1.95(.35)	
모 직업	자영업	155	1.90(.70)		1.65(.70)		1.91(.44)		2.38(.71)		1.91(.61)		1.90(.54)	
	유	190	1.95(.67)	.18	1.68(.65)	-.20	1.94(.41)	-.98	2.43(.68)	-.14	1.91(.61)	-1.04	1.93(.51)	-.40
	무	250	1.94(.41)		1.69(.40)		1.98(.44)		2.44(.60)		1.97(.66)		1.95(.36)	

* a, b : 서로 다른 문자 간에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 p<.05, ** p<.01, ***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부모역할기대 요인을 분석해 보고, 부모역할기대 수준은 어떠한지, 또 환경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경산 지역에 소재하는 4년제 4개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550명이었으나, 기제가 미비한 응답자를 제외한 470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분석, 일원변량분석,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부모역할기대 요인구조는 생활습관, 가족관계, 진로문제, 성문제, 이성문제의 다섯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부모역할기대 수준은 성문제($M=2.47$)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진로문제($M=1.99$), 이성문제($M=1.95$), 생활습관($M=1.94$), 가족관계($M=1.69$)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역할기대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안이환과 김갑숙(2004)이 연구한 아동기 부모역할기대 수준($M=3.52$)과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학생의 부모역할기대 수준($M=1.93$)을 비교해보면, 대학생들이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이 훨씬 낮았다. 이는 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더불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를 원하므로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문제 영역에 대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생들이 성에 관련된 고민과 문제를 부모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의 개방화와 성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학생들은 성의식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성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부모세대와 성의식과 성가치관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으므로 부모는 이러한 자녀를 도울 수 있도록 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진로문제 영역은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의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선택은 대학생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삶의 가치관, 태도, 사고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진로문제가 가장 고민스런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김지환, 임정섭, 1987; 이재창, 1995), 부모와 상의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진로선택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부모는 진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성문제 영역은 대학생들이 이성 친구를 사귄 때 부모님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학생들이 교제하는 이성친구에 대해 부모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한 정미경(2004)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생들은 이성교제를 통해 이성에 대한 이해, 원만한 인간관계, 성숙한 인격형성, 그리고 배우자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이성친구와의 심리적 갈등과 데이트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대학생 자녀들의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여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숙해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활습관 영역은 휴대폰 사용시간 및 요금, 기상 및 취침시간, 식습관 등에 대해 부모들은 적절하게 통제하기를 원하지만, 대학생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생활습관 영역에서의 부모역할기대는 청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이 주로 가족생활의 일상적인 일들에서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들(이권오, 2004; 이주옥, 1993; 정준기, 1985; Smetana, 1989)이 뒷받침을 해준다.

가족관계 영역은 부모님의 부부관계, 부모님과 자신의 관계가 친밀하기를 원하며,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오고, 자존감을 높여주며 다른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남·여 고등학생들이 화목하고 안락한 가정 분위기와 상담 및 대화의 필요성을 모두 원한다는 연구들(김관식, 1988; 김영순, 1986; 한남제, 1981)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환경 변인에 따른 부모역할기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개인 변인에 따른 부모역할기대는 성별에 있어서 생활습관, 가족관계, 진로문제, 성문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역할기대가 높게 나타나, 남학생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대화 및 친밀한 교류가 부족하며, 생활전반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 및 가족의 기대가 남학생에 대해 더 높기 때문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지각한다는 황상하(199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연령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생활습관, 가족관계, 진로문제, 성문제에서 24세 이상 집단이 23세 이하 집단보다, 이성문제에서는 27세 이상 집단이 26세 이하 집단보다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점은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문제 및 이성문제, 배우자 선택 등으로 고민이 많으며, 부모와의 마찰이나 갈등도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해야 하며, 자녀와의 갈등을 줄여 나가기 위해 의사소통 기술을 익혀 나가야 할 것이다.

출생순위에서는 이성문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간이 말이나 막내보다는 이성문제 영역에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거주형태에서는 이성문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택 이외에 거주하는 집단이 자택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았다. 이는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들이 이성교제가 더 많으며,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정생활 만족도에서는 가족관계, 진로문제, 성문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정생활에 불만인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보다 가족관계와 진로문제에 대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았으나, 성문제에 있어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가정생활에서 부모와의 관계와 진로선택, 성가치관 등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는 진로와 성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 자녀와 원만한 대화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는 진로문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에 불만인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보다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았다. 이는 학교선택, 전공 선택, 진로선택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는 진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용돈 만족도에서는 생활습관, 이성문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용돈에 만족하는 집단이 불만인 집단보다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았다. 이는 용돈에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 변인에 따른 부모역할기대의 차이 검증에서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할기대는 아버지의 연령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연령이 56세 이상 집단이 55세 이하인 집단보다 생활습관과 가족관계에서, 그리고 56세 이상인 집단이 50세 이하인 집단보다 진로문제, 성문제, 이성문제에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았다. 이는 아버지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와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고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며,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보수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머니의 연령에서는 생활습관, 성문제, 이성문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56세 이상인 집단이 55세 이하인 집단보다 생활습관과 이성문제에 대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의 생활태도와 이성교제에서 이해가 부족하며,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문제에서는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어머니연령이 많을수록 성의식에서 자녀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버지 학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 학력에서는 생활습관과 성문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이 고졸인 집단보다 생활습관에 대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았으나 성문제에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점은 어머니 학력이 낮은 경우 자녀와의 친밀한 심리적 교류가 부족하며, 공감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상담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역할기대에 관한 연구는 아동기와 청소년기까지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역할기대를 조사·분석한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기 부모교육사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청년기 부모교육사 교과과정의 내용은 청년기의 발달과제, 청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발달과업, 상담자 역할과 태도, 의사소통기술, 진로지도, 부부관계증진, 부모와 자녀의 자존감 향상,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청년기 성교육에 대한 지도 등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기 부모교육사는 인간적 자질과 함께 청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상담자로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부모교육전문가로서 꾸준히 자신을 연마해 나가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생 자녀의 부모역할기대 내용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자녀역할기대 내용을 동시에 고려한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부모역할기대와 부모역할수행을 비교·분석하여 부모-자녀간의 갈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자녀역할기대와 자녀역할수행을 비교·분석하여 부모-자녀간의 갈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1). **심리척도 핸드북 I, II**. 서울 : 학지사.
- 고영규(1993). 어머니의 의사소통수준과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향자(1987). 청년기의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논문집, 15(1), 264.
- 김관식(1988). 부모·자녀의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공주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1986). 중년기부인의 심리적 위기감과의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논문집, 27, 419-420.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석출, 조현호(1999). 대학생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창의력개발연구**, 3, 49-68.
- 김선애(1990).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 변인.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순(1986). 중등학교 학생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바라는 역할기대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1978). 청년기 가출과 부모의 역할. **신경정신의학**, 17(1), 38.
- 김재원(2003).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근로행태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6(1), 14.
- 김재은, 안덕자(1981). 대학생문제 진단검사 개정보고. **학생생활연구**, 17, 70-71.
- 김재은(1987).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지환, 임정섭(1987). 대학생 문제 조사연구. **충남대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5, 110.
- 나종완(1990). 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에 관한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2000). 성인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일고찰. **사회과학 논집**, 19(2), 1.
- 박영우(1994). 대학생의 진로선택과 취업불안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외숙(2001). 어머니의 대화방식과 대학생 자녀의 신경증경향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인문논총 제20집**, 257-273.
- 박재욱(1994).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지각. **학생지도연구**, 14, 3-23.
- 박찬주(199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수, 김두화, 김병택(1996). 대학생 문제 및 해결 행동 분석과 지도 방안. **학생생활연구**, 17(1), 1-56.
- 서진숙(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설기문(1993). 우리나라 대학상담의 이론적 모형. **대학생활연구**, 11, 32.
- 성숙자, 백지숙(2003). **성인기로의 길목에서**. 서울 : 교문사.
- 손해곤(199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정 및 정체감 위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재희(1988).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윤아(1998).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이환, 김갑숙(2004). 아동기 부모교육사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부모교육연구, 1(2), 129-147.
- 오영희(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59-77.
- 유영주(1992). 신 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이경숙(1983). 자아정체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권오(2004).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 외(2004). 결혼의 기술. 서울 : 신정.
- 이달석(1999) 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성의 실태분석. 조선대 생활지도연구, 55-73.
- 이민영, 홍창희(2000). 학생생활연구소 내담자 실태조사 보고서. 연구보(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2, 35-50.
- 이수진(2000). 대학생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 및 관계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1995). 대학생의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12, 82.
- 이정란(198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1998). 대학생의 심리적 변인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옥(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2004).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성·손영숙·김미경(1989). 대학생 문제 진단 및 해결행동 체크리스트 제작 연구. 학생생활연구, 25, 44.
- 임영식, 한상철(2000).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 학문사.
- 정미경(2004).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0, 85-98.
- 정영숙(2001). 청소년심리학. 서울 : 시그마프레스.
- 정옥분(2003).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정옥분, 정순화(2004). 부모교육. 서울 : 양서원.
- 정준기(1985). 부모-자녀간 갈등 및 역할 기대에 관한연구. 공주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정(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승희(1993). 대학생의 이성관계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상담 효과분석.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영희(1987). 대학생의 자아정체 수준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정화, 전영주(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7.
-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자녀와 함께 하는 인터넷*.
- 최윤진(2000).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학 연구*, 7(2), 284.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2000). *상호인격을 존중하는 대화방법*.
- 한남제(1981). 한국사회에서의 부모 자녀의 역할기대. *경북대학교 논문집(인문, 사회)*, 31, 87-90.
- 한소선(2002). 청소년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상하(1994).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혜경, 김혜수(2002). *청년발달 심리학*. 서울 : 학지사.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Petersen, A. C., & N. Leffert(1997). *What is special about adolescence in Psychosocial Disturbances in Young People*. ed. Michael Rutt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lverberg, S. B., & Steinberg, L.(1987). Adolescent Autonomy, Parent -Adolescent Conflict, and Parental Well-Be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3), 293.
- Smetana, J.(1989). Adolescent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1063-1064.